초등생 '나홀로 출국' 사상 최대

상반기 4,500명 지난해보다 24% 급증

주로 여름방학중 유학·영어 목적 많아

올해 상반기에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나 홀로' 해외로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승객 가운데 나 홀로 떠나는 어린이 승객에게 이들 항공사가 제공하는 '비동반 소아(UM : Unacco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한 만 5~12세 초등학생은 4천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637명에 비해 23.8% 늘어났다.

올해 이 서비스 이용자를 월별로 보면 1월이 1천788명으로 가장 많고 6월 940명, 2월 835명, 4월 323명, 3월 310명, 5월 307명 등으로 주로 방학기간에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11일까지 두 항공사의 이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은 1천125명으로 이미 지난해 7월 한 달(2천189명)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등 방학을 목전에 두고 급증세를 보였다.

비동반소아(UM : 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만 5~12세의 어린이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를 만나기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로 대부분의 이용자는 출국 목적이 유학이나 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조기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외국 항공사 이용자, 부모와 함께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까지 합친다면 조기 해외 유학 초등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떠나는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주, 중국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여름방학이 본격화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더 많은 초등학생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유학 중인 광주지역 초등학생은 지난 2월 말 현재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이주로 인한 인정유학 191명, 불법 유학 185명 등 모두 376명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보, 중증환자·6세미만 아동 지원 확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가벼운 질환 본인부담금 늘어

건강보험이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와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를 줄여주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과 6세 미만 어린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할인,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하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 중 공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외래진료비 정률제 등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8월 1일부터 도입될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그동안 외래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천원(약국은 1천500원)씩 내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적으로 의원에서 200원, 약국에서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비에서 100원 미만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천500원, 약국 1천200원)가 유지된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상한금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함께 8월부터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할인돼 29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환송식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서 열린 레바논 파병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환송식에서 파병 장병들이 완벽한 임무 수행을 다짐하며 "아자"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개, 한국 보신탕용 수출"

동물보호단체 주장 파문

헝가리에서 사육된 개가 한국의 보신탕용으로 대거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헝가리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고 나서 진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이 단체의 주장을 일부 헝가리 유력 언론들이 '헝가리 개가 한국의 미식가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헝가리 화이트 크로스(White Cross) 동물보호협회와 MTI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사이트(www.feherkereszliga.hu)에 올린 성명서에서 헝가리에서 수출된 개의 일부가 아시아 지역에 식용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설계안 수용하겠다"

시민단체 연석회의 최종 발표 … 동구 비대위·예총은 불참

'광주 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8일 문화전당 설계안을 수용키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동구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예총은 지난 5월 연석회의의 논의 과정에 이견이 크다며 연석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연석회의는 18일 오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종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 결과발표를 통해 "문화전당 최초 설계안을 존중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설계보완을 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 ▲외곽 주차장의 분산 배치 ▲시민합의 거쳐 전시공연장 확충 ▲도심리모델링사업 국비 추진 ▲전당내 문화향유기능 보강 ▲문화도시 사업에의 시민참여 확대 등에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민예총,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진보연대, 시민문화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석회의는 지난 4월 6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1차례(7월4일) 회의를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한다

광주시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른 로봇산업 테마파크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18일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계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마스터플랜 확정, 유치위 구성 등 유치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인천, 대전, 전남 등 10여 개 광역 지자체와 안산시, 고양시 등 5개 기초단체 등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18일 가진 로봇랜드 조성사업 제안 용역보고회에서 신규 투자비 최소화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이미 추진중인 80여만평에 달하는 어등산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봇랜드는 20만~25만평 부지에 3천억원을 투입해 로봇놀이기구, 로봇체험관, 상설전시관, 전용경기장, 유통판매장 등이 어우러진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로봇랜드를 유치할 경우 연간 매출 734억원, 생산유발효과 1천289억원 외에 2천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이달 25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공비축 쌀 43만t 매입

정부가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43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사들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비축용 추곡매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7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작년의 50만4천t(약 350만석)보다 14% 적은 43만2천t(약 300만석)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31만7천t은 포대벼로, 11만5천t은 일정 규격의 포대에 담지 않은 산물벼 상태로 매입한다.

내년 1월 정산에 앞서 농가들에 우선 지급되는 가격은 1등급 벼 40kg당 4만8천450원으로 작년과 같다. 산물벼에는 포장 비용 670원을 뺀 4만7천780원이 지불된다. /연합뉴스

해군 목포방어사 60년만에 사라진다

해군작전사령부로 통합

전남 서남해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해군 목포해역방어사령부(이하 목포방어사)가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목포방어사는 "해군이 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진해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12월 중순까지 부산으로, 부산의 제3함대사령부(3함대)는 11월 말까지 목포로 각각 이전키로 함에 따라 목포방어사가 해체돼 해작사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46년 8월 해군 목포기지로 창설된 후 1998년 10월 목포해역방어사령부로 개편된 목포방어사령부는 창설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목포방어사 관계자는 "해군은 5천억여 원을 투입해 작년 6월 준공한 부산 작전기지와 목포기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제주기지를 중심으로 남방 해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높여 해상교통로 보호 등 원양작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日日만평

- 김종두

짜증나는 뉴스만 보다가…

謹弔

會社葬 公告

訃告